

도 지나친 축하 무서운 '생일 빵'

광주 J고 2년 A(17)군은 지난 18일 교실에서 10여 명의 반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친구들은 "생일 축하한다"고 외치며 A군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A군은 버둥거리며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친구들의 구타는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다른 반 교실까지 끌려가 구타를 당한 뒤에는 A군에 대한 친구들의 장난(?)은 멈쳤다. A군은 "이른바 '생일 빵'을 할 때는 친한 친구일수록 인정사정 없이 마구 때리는 게 '의리'라며 "맞기 싫어서 자기 생일을 잡주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런, 교복을 뒤집어 씌운 채 집단 폭행을 가하고 이물질이 들어간 맥주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갈수록 폭력화·야만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광주 D고 2년 K(17)군은 지난 16일 교실에서 반 친구들로부터 살벌한

K군은 10여 분 동안 친구들에게 맞아야 비틀거리지만, 달리는 반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깔깔대고 웃을 뿐이었다. K군은 "생일 빵은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잊지 않는 생일축하를 해주고 또래 친구들과의 친분을 돈독히 유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구타를 당했다. 입고 있던 교복 치마가 찢어졌지만 친구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다. L군은 "그래도 맞는 것은 괜찮은 편이다. 하고 후 하숙하는 친구 집에 가서 침 등 각종 이물질이 든 맥주를 강제로 먹이는 야만적인 생일 빵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인성교육팀 김정인 장학관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보내다시피 하는 중·고교생의 경우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어 생겨난 현상 같다"며 "생일을 맞은 친구를 축하해주는 것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들과 '생일 빵' 문화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고생 생일 축하 이유 구타·강제 음주 유행

광주지역 중·고교생 사이에서 생일을 맞은 친구를 축하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거나 과일 등을 먹이는 살벌한 '생일 빵'이 새로운 생일 축하 문화로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밀가루와 계란세례를 퍼붓는 것은 물

생일 축하를 받았다. K군은 친구들에게 과자와 음료수가 담긴 종이 가방으로 빙겨 나간 점으로 미뤄 반대로 화물차가 오토티를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K씨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해 주는 우리들만의 문화지만 요즘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학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 S여고 1년 L(16)양은 최근 수업이 끝나자마자 '생일 빵'을 피해 교실 밖으로 도망갔다. 이를 본 친구들은 L양의 뒤를 쫓았고, 결국 잡힌 L양은

나원침 (7687) 김동주



다 좋은 건데...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KCC

교통신호 사망 2명 원혼 달렸다

광주지법 형사1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부의 꼼꼼한 현장 검증과 치밀한 분석이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 2명의 원혼을 달렸다.

지난 9월 23일 새벽 1시께 광주 광산구 신촌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경현) 판사들과 공판검사, 경찰관, 변호인, 유족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사고 현장이 재현됐다.

총질지점과 각도, 사체 발견지점, 노면상태와 혈흔의 형태, 상해부위, 갓길 구조 등이 검증됐고, 가상 충돌도 실시됐다. 2년전 같은 장소, 같은 시각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검증을 위한 자리였다.

K(59)씨는 지난 2006년 화물차를 몰고가다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2차로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 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K씨에 대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등 정상적으로 주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씨가 차로를 바꿔 사고를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1부는 현장 검증과 전문가 감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물차와 인도 사이에 1m를 조금 넘는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58cm는 도로보다 10cm가량 낮은 배수로였다. 따라서 배기량 900cc 짜리 폭 72cm의 오토바이가 운전대를 확 꺾으면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는 K씨측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K씨 주장대로 오토바이가 화물차를 들이받았다면 뒷바

퀴 구동력을 고려할 때 사고 후 오토바이는 화물차와 나란한 방향으로 끌려 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간 점으로 미뤄 반대로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K씨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을 벌인 것은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정재 판사의 '고집' 때문이었다. 이 판사는 1심 판결이 아무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건 현장을 찾았고, 교통안전공단과 분석사, 국과수 감정사, 경찰의 실황조사 등을 꼼꼼히 살폈다.

정경현 부장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K씨가 총남 천안에서도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1명을 사망케 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법원에 신청해 대전지법에 계류 중인 사건을 가져와 병합 심리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권위 축소 안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지부는 24일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정부의 국가인권위 축소 개편 움직임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시위를 벌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권위 인원을 대폭 줄이고 광주 등 지역사무소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건설사 사장 납치 거액 요구 4명 검거 '부장검사 폭행' 40대 기소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권을 인수하려다 실패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투자 건설사 사장을 납치 감금한 뒤 거액을 요구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재개발 사업권 인수에 실패하자 자신이 투자한 광주 모 건설사 사장을 납치 감금한 뒤 폭행한 김모(56)씨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달아난 공범 노모(54)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태운 뒤 13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8억원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 초 동구의 한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C씨의 건설사에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억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최근 자금압박으로 인수가 실패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송삼현)는 24일 광주지검 이모 부장검사에 대해 공무를 휘두른 혐오(4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철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6일 광주지검 청사 안 이모 부장검사 사무실에 찾아가 "내가 너를 죽여버려려고 왔다"는 등의 옥살이를 하며 휴대전화기와 흥기로 이 부장검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가 사용한 흥기는 15cm 길이의 철제 공구로 범행 당시 외부 주머니 속에 넣어져 있었으며, 이 부장검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면제 탄 술 마시게 해 금품 가로채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 여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4일 남성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은 L(여·37)씨와 S(여·49)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L씨 등은 지난 13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 K

씨의 술잔에 수면제 세 알을 갈아넣은 뒤 K씨가 술을 마시고 잠든 틈을 타 현금 40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K씨 등 10명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과거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현금 체크카드를 한 벌에 30만원 짜리 명품 속옷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강병규씨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법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거액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36·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터넷 도박을 한 삼성 라이온즈 소속 현직 프로야구 선수 3명을 같은 혐의로 범금 1천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연합수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H.010-3686-8446 and various tables listing properties in different district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

Advertisement for Ritcheen (리첸) kitchenware. Features a woman in a black dress and text: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Includes address and phone number (062)515-2272.